

오은영, 사자머리 풀고 민낯 공개...청초한 매력

등록 2025.06.17 07:01:00



[서울=뉴시스] MBN 개국 30주년 대국민 위로 프로젝트 '오은영 스테이'가 23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사진=MBN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호령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화장기 없는 얼굴을 공개했다.

MBN 개국 30주년 대국민 위로 프로젝트 '오은영 스테이'는 지난 12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은영의 인간적인 매력이 담겼다.

그녀는 방송 최초로 수수한 민낯에 손질 없는 헤어, 혈렁한 트레이닝복 차림 등 꾸밈없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템플스테이에서 1박을 보낸 오은영은 이른 아침 한옥의 창호지문을 활짝 열며 환한 미소로 등장했다.

그녀는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기가, 우와"라는 감탄을 내뱉는다. 이어 방 안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문턱에 앉아 사색에 잠긴 듯 턱을 귀 채 조용히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잔잔한 여운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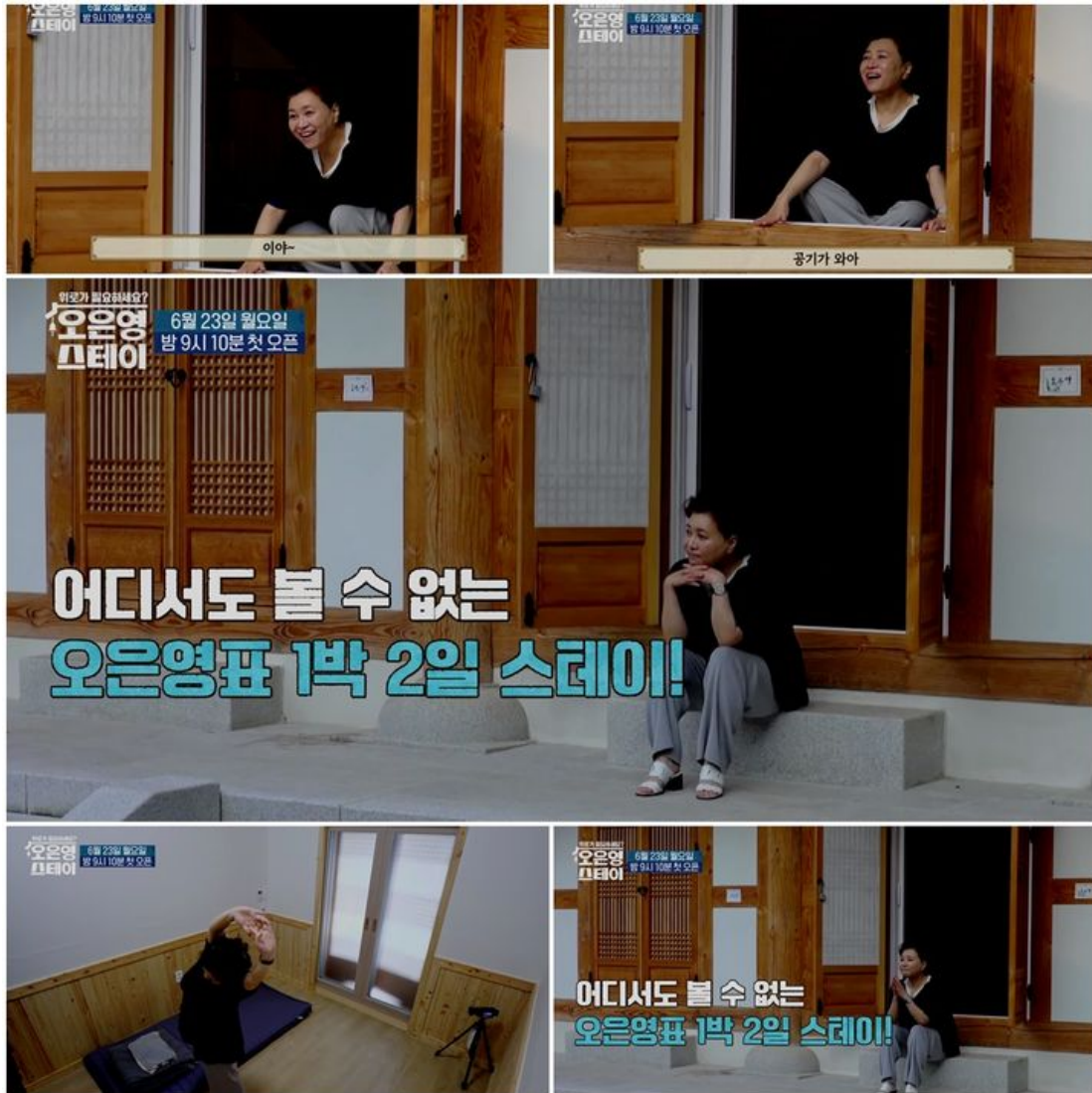
끝으로 오은영이 마당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양팔을 번쩍 든 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유의 화려함과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은 오은영의 진짜 웃음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오은영이 '오은영 스테이'에서 보여줄 위로의 새로운 방식도 기대를 높였다.

'오은영 스테이' 제작진은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만큼, 꾸밈을 걷어낸 오은영 박사의 진심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다. 오은영 박사의 조용하지만 강한 위로가 어떻게 전달될지 본 방송을 함께해 달라"고 청했다.

'오은영 스테이'는 살아가면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아픔을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1박 2일을 보내며 위로와 공감,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오은영을 중심으로 배우 고소영, 개그맨 문세윤이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지는 시간을 함께한다.

오는 23일 오후 9시10분 첫 방송.



[서울=뉴시스] MBN 개국 30주년 대국민 위로 프로젝트 '오은영 스테이'가 23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사진=MBN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